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관광 사업체와 종사자가 밀집한 경제권역이다. 세부업종별로는 사업체수의 경우 여행업이 절반 이상이며 종사자수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중국 사드보복,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등 연이은 대외악재는 동남권 관광산업 활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관광객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관광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감소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성장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동남권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월중 동남권 관광수입액은 5,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결을 위한 노력과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체제 강화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적별 관광객 다변화, 동남권 연계상품 개발 등 수요확충 전략 마련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체질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관광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수도권 제외하면 최다

동남권 관광사업체수¹⁾는 2018년 기준 4,065개이다. 전국대비 비중은 12.2%에 달하고 있어 국내 관광사업체 절반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50.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에 이어 호남권이 10.8%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경권, 충청권, 제주권, 강원권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도별로는 전국 관광사업체중 34.6%에 달하는 11,561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13.2%), 제주(6.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전국대비 5.9%(1,977개), 경남은 4.9%(1,625개)가 입지해 있어 17개 시도중에서는 4~5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산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1.4%(463개)로서 세종(0.3%)을 제외하면 관광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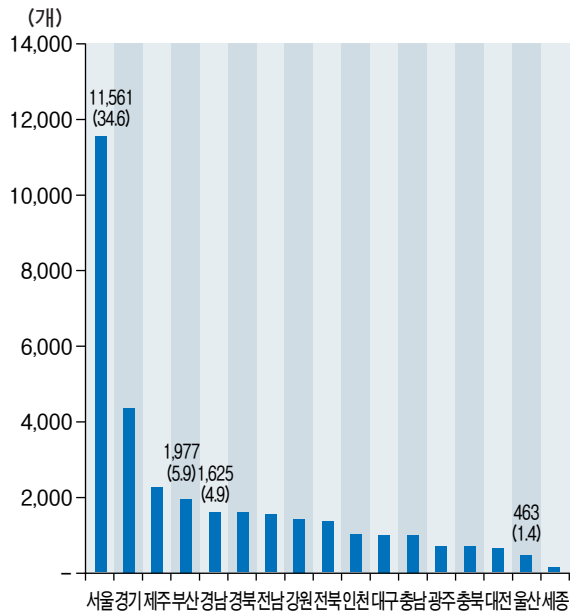
경제권역별 관광사업체수

구분	경제권역	사업체수	비중 (개, %)
1	수도권	16,988	50.8
2	동남권	4,065	12.2
3	호남권	3,616	10.8
4	대경권	2,642	7.9
5	충청권	2,487	7.4
6	제주권	2,251	6.7
7	강원권	1,403	4.2
전국 합계		33,452	100.0

주 : 2018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조사)

시도별 관광사업체수



주 : ()내는 전국대비 비중, 2018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조사)

1) 2018년 12월 31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허가(카지노업,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신고(기타유원시설업), 지정(관광편의시설업)된 관광사업체수 기준

동남권 관광사업 종사자수는 2만 7,164명으로 전국대비 1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도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동남권에 이어 강원권 비중이 8.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 관광사업 종사자수가 10만 702명으로 전국의 3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은 전국대비 비중이 5.6%(1만 5,114명), 경남은 3.5%(9,340명), 울산은 1.0%(2,710명)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권은 관광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반면 기업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사업체당 관광사업 종사자수는 전국이 8.0명에 달했으나 동남권은 6.7명에 그치며 호남권(5.7명)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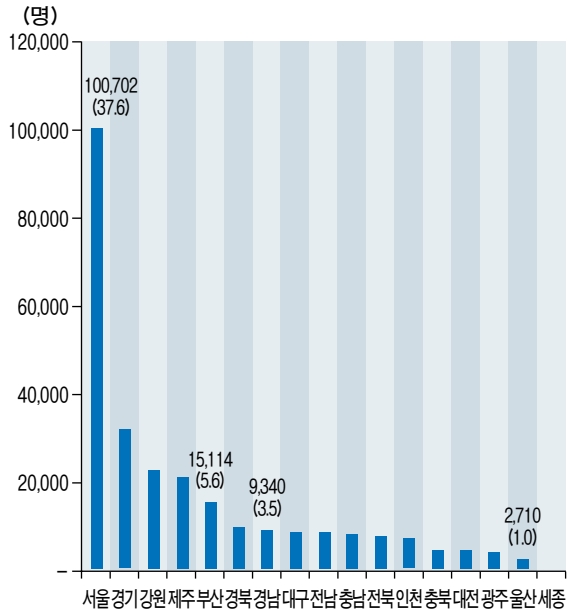
경제권역별 관광사업 종사자수

구분	경제권역	종사자수	비중 (명, %)
1	수도권	139,805	52.3
2	동남권	27,164	10.2
3	강원권	22,695	8.5
4	제주권	21,150	7.9
5	호남권	20,623	7.7
6	대경권	18,457	6.9
7	충청권	17,667	6.6
전국 합계		267,561	100.0

주 : 2018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조사)

시도별 관광사업 종사자수



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2018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조사)

2) 경제권역별 관광 사업체당 종사자수 현황(2018년 기준)

· 강원권 16.2명, 제주권 9.4명, 수도권 8.2명, 충청권 7.1명, 대경권 7.0명, 동남권 6.7명, 호남권 5.7명

사업체 절반 이상이 여행업, 종사자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비중 높아

세부업종별로는 동남권 전체 관광사업체중 절반이 넘는 2,117개가 여행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각각 500~600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광숙박업(278개), 국제회의업(86개), 카지노업(2개)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종사자수의 경우 여행업(7,707명)과 관광숙박업(7,693명)이 각각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편의시설업(5,219명), 유원시설업(3,331명), 관광객이용시설업(1,675명) 순이었으며 카지노업(776명)과 국제회의업(761명) 종사자수는 1,000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관광사업체당 관광사업 종사자수는 카지노업이 38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행업의 경우 3.6명에 불과하여 세부업종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³⁾.

세부업종별 관광사업체수

(개,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여행업	2,117 (52.1)	1,197 (60.5)	232 (50.1)	688 (42.3)
유원 시설업	595 (14.6)	227 (11.5)	91 (19.7)	277 (17.0)
관광객 이용시설업	498 (12.3)	163 (8.2)	36 (7.8)	299 (18.4)
관광편의 시설업	488 (12.0)	174 (8.8)	80 (17.3)	234 (14.4)
관광 숙박업	278 (6.8)	154 (7.8)	15 (3.2)	109 (6.7)
국제 회의업	86 (2.1)	60 (3.0)	9 (1.9)	17 (1.0)
카지노업	2 (0.0)	2 (0.1)	0 (0.0)	0 (0.0)
합계	4,065 (100.0)	1,977 (100.0)	463 (100.0)	1,625 (100.0)

세부업종별 관광사업 종사자수

(명,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여행업	7,707 (28.4)	4,570 (30.2)	785 (29.0)	2,352 (25.2)
관광 숙박업	7,693 (28.3)	4,778 (31.6)	434 (16.0)	2,481 (26.6)
관광편의 시설업	5,219 (19.2)	3,046 (20.2)	734 (27.1)	1,439 (15.4)
유원 시설업	3,331 (12.3)	947 (6.3)	570 (21.0)	1,814 (19.4)
관광객 이용시설업	1,675 (6.2)	393 (2.6)	157 (5.8)	1,125 (12.0)
카지노업	776 (2.9)	776 (5.1)	0 (0.0)	0 (0.0)
국제 회의업	761 (2.8)	604 (4.0)	29 (1.1)	128 (1.4)
합계	27,164 (100.0)	15,114 (100.0)	2,710 (100.0)	9,340 (100.0)

주 : ()내는 지역내 비중, 2018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체조사)

3) 동남권 세부업종별 관광 사업체당 종사자수 현황(2018년 기준)

· 카지노업 388.0명, 관광숙박업 27.7명, 관광편의시설업 10.7명, 국제회의업 8.8명, 유원시설업 5.6명,
여행업 3.6명, 관광객이용시설업 3.4명

[참고] 관광사업 정의 및 종류

■ 관광사업 정의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함

[자료 :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 관광산업의 정의는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오락 따위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광사업 종류

구분	내용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편의시설업	상기 적시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6개 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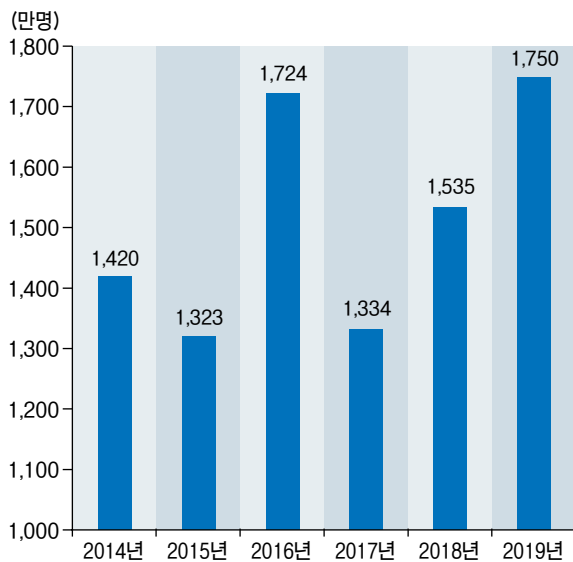
자료 : 관광진흥법

연이은 대외악재에 따라 관광산업 활력 약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⁴⁾, 2017년 중국 사드(THAAD) 보복⁵⁾ 등의 충격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6.8% 줄어든 1,323만명, 2017년에는 22.6% 감소한 1,334만명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및 동남권 관광객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충격은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⁶⁾. 관광상품, 사업포트폴리오, 전문인력 비중 등이 상당부분 중국과 일본 관광객 대응구조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은 전국 7.0%, 동남권 20.9% 감소하였으며 2017년 사드 보복시기에는 전국 37.5%, 동남권 33.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외래관광객실태조사)

중국 및 일본 관광객 방문 증감률

구분	메르스 시기 (2015년)		사드보복 시기 (2017년)	
	전국	동남권	전국	동남권
중국	-2.3	-13.9	-48.3	-42.9
일본	-19.4	-27.3	0.6	-24.3
중국·일본 합계	-7.0	-20.9	-37.5	-33.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외래관광객실태조사)

4) 2015년 5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같은해 12월 공식적으로 사태 종료가 선언됨

5) 2016년 7월 정부가 한반도내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은 2017년중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본격화

6) 중국 및 일본 관광객 비중(전체 외국인관광객수 대비, 2014~18년 평균 기준)
· 전국 55.6%(중국 39.7%, 일본 15.9%) · 동남권 : 48.1%(일본 25.4%, 중국 22.7%)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동남권 관광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18년중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관광 사업체수는 4,065개로 전년대비 20개(-0.5%), 종사자수는 2만 7,164명으로 전년대비 4,268명(-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여행업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여행업 사업체수는 71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2% 줄어든 것이다. 종사자수의 경우도 4,854명 줄어들며 전년대비 36.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와함께 국제회의업도 사업체수(-5개)와 종사자수(-576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메르스와 사드보복 등 연이은 대외 충격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 침체는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2015년 0.5% 감소, 2017년 1.4%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 관광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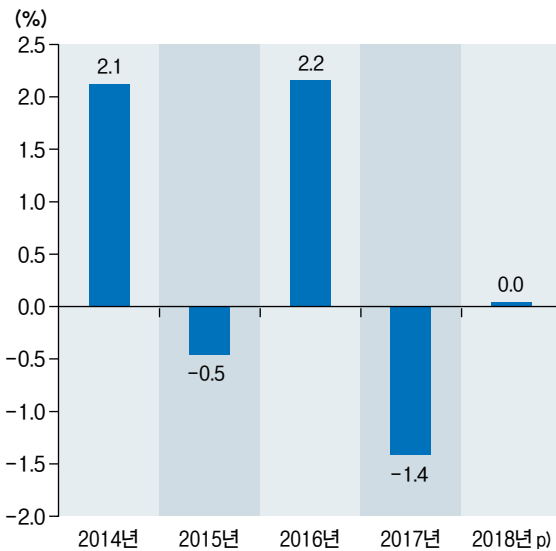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증가율	현황	증가율
2016년	3,457	21.4	26,355	18.2
2017년	4,085	18.2	31,432	19.3
2018년	4,065	-0.5	27,164	-13.6

주 :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동남권 숙박 및 음식점업 성장률



주 : 201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7) 동남권 세부업종별 관광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

(개, 명)

구분	전체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 시설업
사업체수	-20	-71	-5	33	0	42	14	-34
종사자수	-4,268	-4,854	-576	-238	38	149	448	762

주 :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계 어려움 가중

금년초 국내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주요기관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져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⁸⁾.

올해 반등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던 동남권 경제도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2017년 중국 사드보복,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타격을 받았던 지역 관광업계가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금년 2월중 동남권 관광수입액은 5,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남권으로 유입되는 내국인 관광객 40%, 외국인 관광객 80% 감소를 가정한 결과이다⁹⁾. 동남권 관광수입액이 연간 11조 4천억원, 월평균 9천 5백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한달간 지역 관광수입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관광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방문 관광객의 여행 지출액

(십억원)

구분	내국인 지출액	외국인 지출액	연간 지출액 합계
동남권	7,606	3,753	11,359
부산	3,523	3,071	6,594
울산	419	259	678
경남	3,664	423	4,087

주 : 1) 2018년 기준

2) 내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국내여행 지출액 기준

3)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지역별 외래관광객 1인 지출 경비(\$) $\times$ 2018년 연평균 환율(1,100.3원)

$\times$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수(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지역별 방문 비중으로 추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8) 한국은행은 금년중 국내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에 그치며 2%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모건스탠리 등 일부 해외 IB들은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9) 국내 관광객수 변화 추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제주도 관광객 입도 통계 참조

(명, %)

구분	2019.2.1~24	2020.2.1~24	증감률
내국인	848,711	533,001	-37.2
외국인	97,144	24,208	-75.1
합계	945,855	557,209	-4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자영업자 피해 클 전망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내 관광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지역 방문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1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권은 부산의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감천문화마을과 경남의 양산 통도사, 진주성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의 내국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다. 시도별 내국인 관광 비중을 보면 경남의 경우 강원, 경기 다음의 최대 방문 관광지역이며 부산은 17개 시도별 방문순위 7위에 해당하는 등 관광지로서 높은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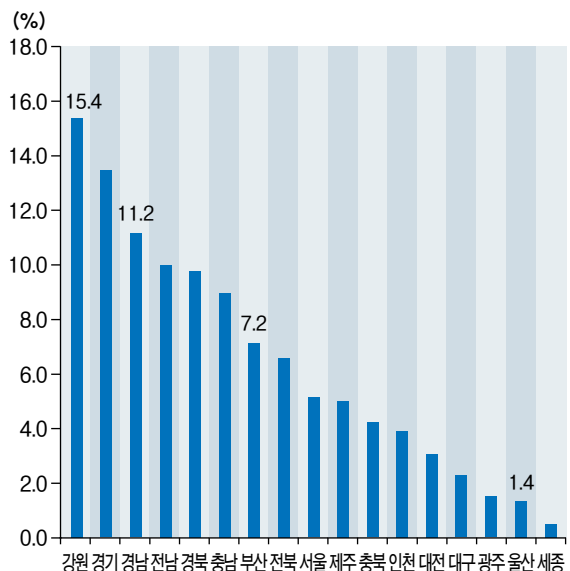
지역 상권도 활력을 크게 잃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2월 중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불안심리 확대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사태 조기종결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내국인의 동남권 관광지 방문 현황

(만명)		
지역	주요 관광지	관광객수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217.5
	감천문화마을	205.0
	태종대 관광지	108.3
울산	태화강대공원	90.5
	울산대공원 유료시설	61.5
	대왕암공원	59.7
경남	양산 통도사	239.5
	진주성	224.7
	통영 동피랑마을	172.8

주 : 2018년 기준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시도별 내국인 관광 비중



주 : 방문횟수 기준 (2018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결 희망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야

국내외 여행객 감소로 여행업, 항공업, 숙박업, 음식업, 마이스업 등 관광업 및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는 임금삭감, 무급휴가 등 비상경영을 통해 이번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및 지자체도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하고 관광업 관련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별융자, 대출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BNK금융에서도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포용금융 확대 등 특별자금을 지원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관광객 급감의 영향으로 경영악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단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위기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산업 체질 재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남권 방문 비중이 크게 낮은 유럽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부산이 최근 정부로부터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면서 동남권 관광산업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되었다. 울산, 경남이 함께 연계하고 힘을 모은다면 동남권이 매력적인 국제 관광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을 소개합니다”, 2018.12

———, “국민여행조사”, 각년도

———, “관광사업체조사”, 각년도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각년도

산업연구원,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5.6

한국은행, “경남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2018.8

———, “전남지역 관광 현황 및 경제적 효과”, 2020.1

현대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경제 파급 영향”, 2020.1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최근 외래관광객 변화와 호텔시장 점검”, 2019.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www.visitjeju.or.kr

통계청, www.kosis.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同苦同樂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온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범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2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2월 27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